한돈리포트

한돈미래연구소

2024. 4.
Vol. 9.

1. [조사연구] 모돈 교체율 Review ····· 2

2. [시장동향①] 농축산식품 가격 추세 및 요인 ····· 16

3. [시장동향②]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동향 ····· 20

4. [전망] 한돈팜스 2024년 4월 수급 전망 보고서 ····· 23

   -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두수 기반 예측 출하두수 ····· 26

5. [해외동향] 글로벌 돼지 이슈 ····· 27

조사 연구①

모돈 교체율 Review

■ 산차구성

○ 산차별 성적

- 최근 개량된 다산성 모돈은 초산의 성적이 그 전과 비교하면 많이 향상됨
- 산자수 0.5두 증가, 이유전 폐사율은 동일하지만 경산돈의 폐사율이 3% 이상 증가함

○ 이상적인 산차구성

- 연구자나 시기에 따라 제시된 적정 산차에 많은 차이가 있음
- 성적이 우수한 3-5산 모돈의 비율을 50%로 유지하는 것이 수익성에 좋음

○ 초산 성적

- 초산에 실산자수가 높을 경우 이후 산차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
- 그렇지만, 초산모돈의 도태기준은 별도로 정해서 적정산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모돈 교체율

○ 모돈 교체율

- 주요 양돈 국가의 모돈 교체율은 44.04%(캐나다)에서 63%(미국)의 분포로 50% 전후임
- 농장규모가 클수록, 농장성적(PSY)이 좋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도태 산차

- 2산 이하에서 도태하면 육성비용등을 감안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함
- 농장의 모돈도태 산차가 높을수록 수익성에 좋은 영향을 미침
- 6산까지 사용하고 7산이후 모돈을 도태할 경우 수익성이 제일 좋았음

■ 모돈 교체율 향상방안

○ 도전적인 농장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종돈개량

- 산자수, 육질, 성장률 뿐 아니라 모돈의 연산성과 총생애 생산성도 개량해야 함
- 다산성 모돈은 별도의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개량해야 함

○ 2산차 문제

- 영국은 AHDB의 Gilt Watch Program으로 모돈교체율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이유모돈 재사용율 개선

- 초산 및 2산 이후 이유 후 재사용율과 분만율을 향상하면 모돈교체율을 40% 이하로 줄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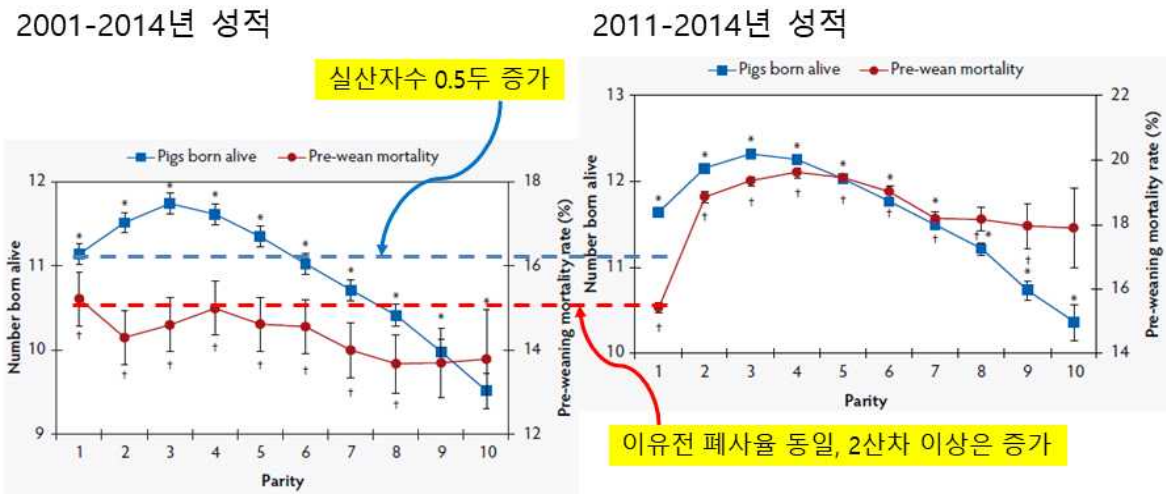
1. 들어가는 글

○ 돈군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약 50%의 모돈이 교체되고 있음 (Engblom 등, 2008). 종돈장의 경우 개량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체가 필요하겠지만 비육농장에서는 모돈의 생산성 측면을 고려할 때 교체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안정적인 후보돈군 육성을 위해서 적정 후보돈군 확충이 필요한데, 초산돈 도태율이 높아지면 돈군의 산차구성도 비효율적이고 생산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Zhang 등, 2023)

2. 산차구성

□ 생산성이 높은 모돈의 비율을 높여야 농장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음. 모돈은 산차에 따라 성적이 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적이 우수한 3-5산차 모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농장에 유리함. 산차별 성적은 <그림1>과 같은 경향을 보여서 이전과 비교하면 초산돈의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Gruhot등, 2017)

<그림1> 산차별 생산성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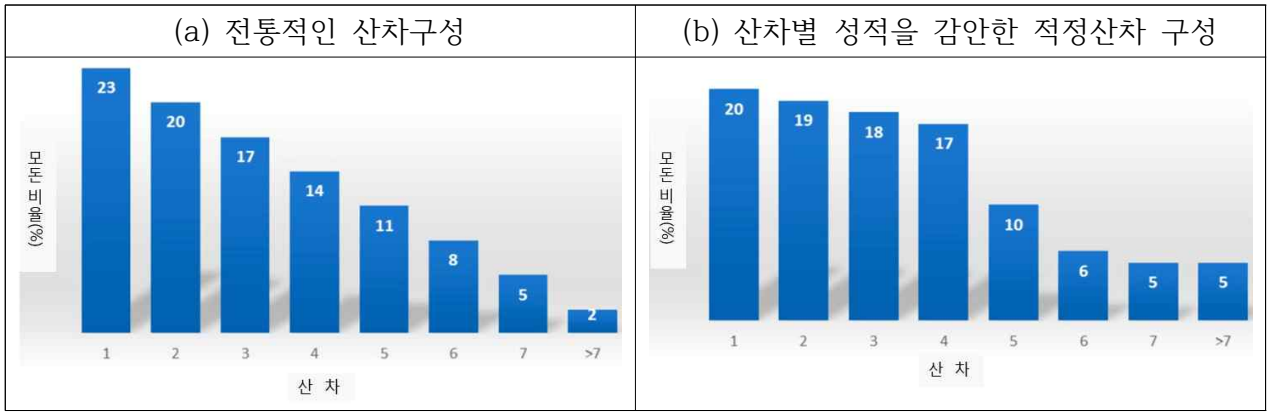


내용 : 105,719복의 성적을 2001-2014 동안 수집, 분석한 결과(Gruhot 등, 2017)

○ 산차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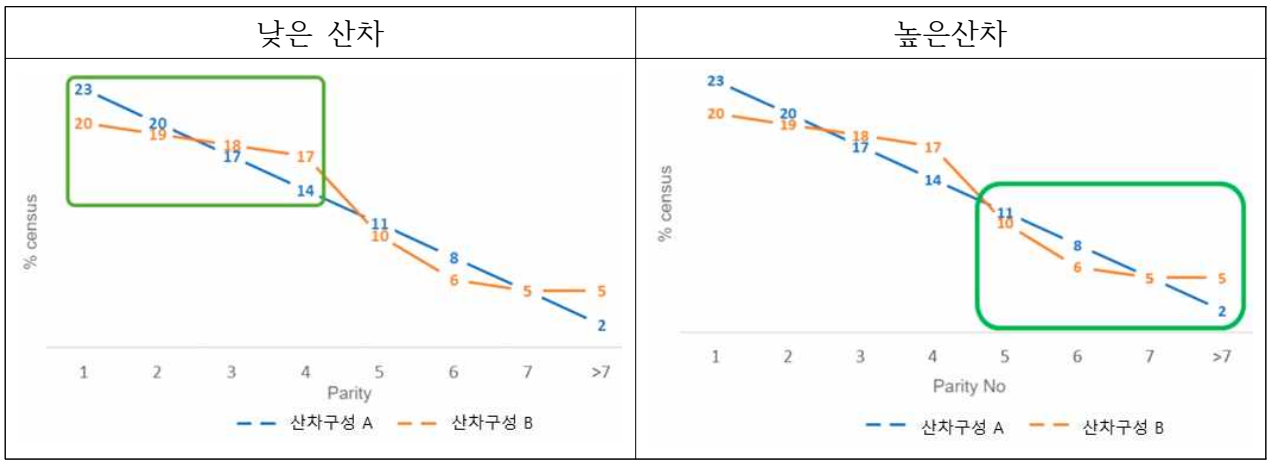
- 전통적으로 좋은 산차 구성이라고 여겨왔던 산차구성과 새로이 산차별 성적을 감안하여 제시한 산차구성이 <그림2>에 표시되어 있음 (Andrés 등, 2017)

<그림2> 산차구성



- <그림2>에서 제시된 두 산차 구성의 차이는 1-2산 차의 비중이 줄어들고 3-4산차와 7산 이상 산차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그림3>, B가 A 보다 초산비율이 낮으므로 후보돈 교체율이 감소하여 더 경제적이며, B는 초산은 적지만 성적이 우수한 3-4산의 모돈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산차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산에서 도태되는 모돈 수가 적어야 함

<그림3> 두 산차구성의 차이



○ 이상적인 산차구성

- 적정산차를 구성하게 되면 돈군의 성적이 최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모돈 교체율이 낮으면 노산 모돈이 증가하여 농장의 생산성이 낮아짐. 반면에 갱신율이 너무 높으면 돈군의 면역성이 저하되고 생산성도 감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돈의 도태가 증가해서 갱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
- 농장의 이상적인 산차구성은 연구자나 연구한 시기에 따라 다른데, <표1>에 정리되어 있음

<표1> 연구자에 따른 농장의 적정산차 구성

연구자 \ 산차	1	2	3	4	5	6	7	8	9+
Straw, 1984	20	18	17	16	15	14			
Parsons, 1990	30	23	19	14	10	5	2	1	
Muirhead, 1997	17	15	14	13	12	11	10	5	3
Carroll, 1999	17	16	15	14	13	11	10	<4	
Morrison, 2002	19.1	16.5	16.9	14.1	10.2	8.2	5.1	4.9	4.9
Stadler, 2003	20	19	18	16	15	9	3		
Andrés 등, 2017	20	19	18	17	10	6	5	5	
PIC	21	19	16	14	11	8	6	4	1

- 대부분의 경우 초산 모돈의 비율이 20% 정도이며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성적이 가장 우수한 3-5산은 50% 이상, 미래 산차 구성을 위한 1-5산 모돈은 85% 이상 유지하는 것이 농장의 성적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산차로 간주되고 있음. 2산차 모돈의 비율을 18~19%로 유지해야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쉬워짐

3. 모돈 도태

□ 산차가 낮은 모돈을 도태하는 것은 후보돈 구입 비용과 종돈 육성 비용은 물론 방역적인 위험과 순치 등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도 큰데, 도태되는 모돈의 15-20%는 1산만 마친 경우가 많고 50% 이상이 5산 이전에 도태된다. 낮은 산차의 도태원인은 질병이나 부상 등 계획되지 않은 도태가 많고 산차가 높을수록 성적이나 노산 등 계획도태가 증가함

○ 모돈 도태의 경제성

- 후보돈 평가 금액은 F1 종돈 구입비용(70만원)과 육성에 필요한 제반비용(30만원)을 포함하여 처음 교배직전에 가장 높아서 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이후 3년에 거쳐 감가상각하여 평가액이 조정됨. 초산 모돈이 교배 직후에 도태된다면 노폐돈으로 판매되는 금액(30만원)을 감안해도 7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됨. 유럽의 경우도 후보돈 육성 비용이 79만원(550유로)으로 도태모돈 판매수익 22만원(150유로)을 감안해도 모돈을 낮은 산차에 도태하면 57만원(400유로)의

손실이 발생함(Aae, 2024)

- 3산 이전에 젊은 모돈을 잃거나 5산 이상의 모돈의 유지비율이 낮은 경우 생산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모돈 200두 농장의 경우 10% 더 많은 종돈을 교체할 경우 연간 1,147만원(8,000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연간 1,147만원의 수익이 감소함

○ 모돈의 도태원인

- 모돈의 도태 원인도 연구자에 따라(시기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데, 번식 실패와 성적 저하가 모돈 도태의 주된 원인이지만 지제에 의한 도태도 10%로 내외로 도태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표2, Stadler 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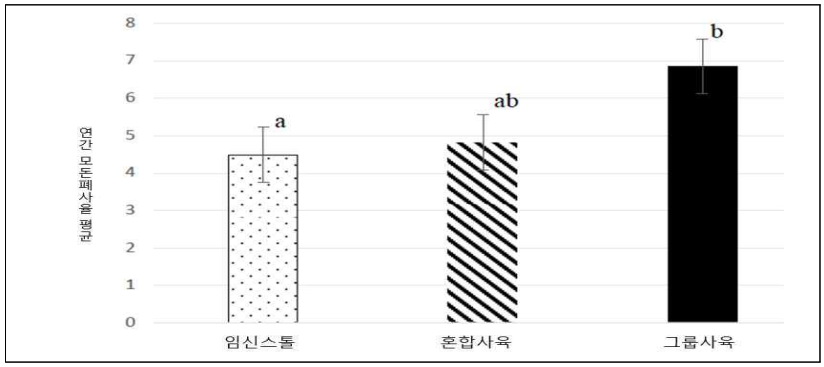
<표2> 연구자에 따른 모돈의 도태원인

	번식실패	성적저하	노산	지제	폐사	분만실패	부상	비유불량	기타
Pomeroy,1960	21.4	22.4	17.1			2.0	13.3	6.1	
Jones,1967	8.8		2.2	9.4	10.1		2.4	5.6	
Svensen,1975	28.8	10.0	3.9	15.0					
Dagorn,1979	39.2	8.4	27.2	8.8	6.5	4.0			
Pattison,1980	37.5	13.8	24.4	11.8					
Joo, 1981	32.6	15.7	16.7	9.7					
Muirhead,1981	35.4		28.2	10.8	4.6	2.8		5.0	
Stone,1981	12.9	20.6	33.4	11.0		1.6	4.2	8.9	
Friendship,1986	23.7	14.5	19.2	11.8	3.0	2.3	2.5	9.0	
D'Allaire,1987	32.4	16.8	14.0	8.9	11.6	7.2	1.6		
Dijkh,1986	34.2	20.1	11.0	10.5					
Stein, 1990	29.6	9.4	17.9	11.0	10.7	5.0	0.8	8.8	
Cederberg,1996	29.0	1.0	8.0	14.0	7.5			13.0	
Kangasnie,1996	28.2	14.4	16.8	13.5	3.2	2.4	1.4	1.9	
Paterson,1996	21.3	2.3	7.2	9.3	5.0		3.5	1.6	
Pederson,1996	34.5	4.6	18.8	6.1	12.3				
Sehested,1996	28.7	4.8	11.3	10.2	4.2	1.9	4.9	0.9	
Boyle,1998	29.8	11.1	31.3	11.3	6.6		7.4		
Lucia,2000	33.6	20.6	8.7	13.2	7.4		3.1		13.3
Boripun,2021	29.32	12.62	34.93	12.56			5.06	0.79	

- 모돈의 연간 폐사율은 돈사의 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임신돈을 일반적인 스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관리할 경우 폐사율이 4.5%에서 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그림4, Ramos, 2022)
- 농장에 스톨과 군사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폐사율이 스톨과 군사의 중간인 4.9%($p<0.05$)인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캐나다의 104개 농장 중 2020년 현재 스톨만 사용하는 농장

42.3%(44개농장), 군사로 사육하는 농장 40.4%(40농장, 35일령 이전 스톨사용 가능), 스톨과 군사를 같이 사용하는 농장 17.3%(18농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4> 돈사 형태별 모돈의 폐사율



4. 모돈 교체율

○ 각국의 모돈 교체율

- 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 주요 양돈 국가들의 모돈 교체율은 <표3>에 표시되어 있는데, 캐나다의 44%에서 영국의 5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Ramos(2022)가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104개 농장은 모돈 규모가 500두 이하 농장이 50농장(48%), 2,000두 이상 농장이 19농장(19%)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3> 주요 양돈국가의 모돈교체율

국가	모돈교체율	비고	조사, 연구자
캐나다	44.04%	104개 주요농장	Ramos(2022)
미국	57-63%	543개 농장 모돈 1,421천두	NPB(2022)
영국	56.38%(일반) 49.43%(방목)	-	AHDB(2024)
아일랜드	52%	폐사6% 포함	Lawlor(2007)
스페인	49.5% (33.6-66.3%)	스페인 98농장, 포루투갈 23농장, 이탈리아 4농장	Iida(2015)

○ 모돈 교체율 경향

- 미국 자조금위원회(NPB, 2022)에서 543농장(모돈규모 142만두)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모돈교체율은 농장규모가 클수록(표4), 농장성적(PSY)이 좋을수록(표5)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4> 농장규모에 따른 모돈 교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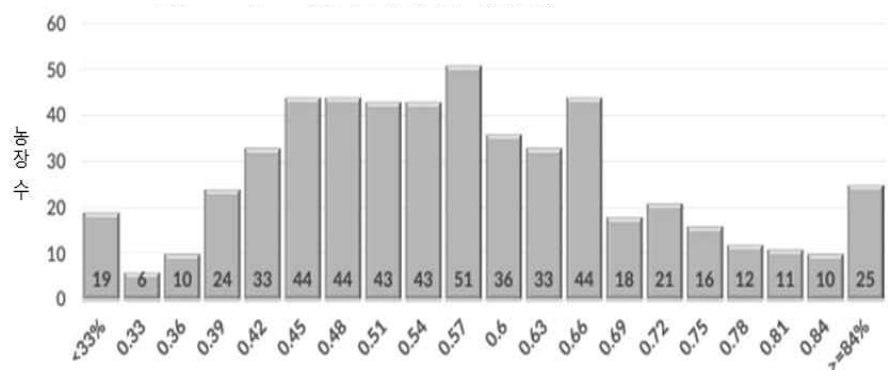
모돈규모 KPI	<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
Sow Farms	94	140	166	51	92
% of total farms	17.3%	25.8%	30.6%	9.4%	16.9%
Average Farm Size	656	1458	2547	3360	6096
Pigs Weaned / Mated Female / Yr	25.61	25.45	25.94	24.84	25.98
Wean to1st Service	6.97	6.74	6.55	7.12	6.63
% Repeats Services	8.0%	7.3%	6.8%	7.5%	6.0%
% Multiple Matings	83.8%	83.3%	81.8%	82.9%	80.3%
Farrowing Rate	83.3%	84.1%	84.6%	83.6%	84.9%
Total Born / Female Farrowed	15.05	15.07	15.06	15.11	15.21
Live Born / Female Farrowed	13.43	13.40	13.52	13.48	13.65
Percent Stillborn	8.1%	8.0%	7.3%	7.4%	6.6%
Pre-wean Mortality	13.3%	14.1%	14.1%	14.3%	14.8%
Piglet Survival	78.6%	77.8%	78.5%	78.3%	78.6%
Pigs Weaned / Female Farrowed	11.57	11.38	11.45	11.24	11.39
Average Wean Age	21.1	21.1	21.2	21.5	21.1
Death & Euthanized Rate	10.3%	12.2%	12.9%	13.1%	12.7%
Replacement Rate 모돈교체율	57.8%	57.7%	57.6%	62.6%	59.9%
Female Non Productive Days	65.7	67.0	59.8	56.1	66.9

<표5> 농장성적(PSY)에 따른 모돈교체율

성적(PSY) KPI	<26	26-27	27-28	28-29	29-30	>=30
Sow Farms	267	72	68	42	39	49
% of total farms	49.7%	13.4%	12.7%	7.8%	7.3%	9.1%
Average Farm Size	2495	2620	2323	2952	3050	2996
Pigs Weaned / Mated Female / Yr	22.68	26.4	27.43	28.44	29.41	31.77
Wean to1st Service	7.54	6.57	6.29	6.04	5.58	5.23
% Repeats Services	9.3%	5.7%	5.4%	4.6%	3.9%	2.0%
% Multiple Matings	74..43%	87.8%	87.2%	80.0%	92.9%	92.9%
Farrowing Rate	81.3%	85.9%	85.9%	87.6%	87.5%	90.0%
Total Born / Female Farrowed	14.61	15.16	15.26	15.49	15.95	16.07
Live Born / Female Farrowed	12.97	13.54	13.74	13.99	14.37	14.66
Percent Stillborn	7.8%	7.5%	7.3%	6.5%	6.1%	5.8%
Pre-wean Mortality	15.8%	14.6%	14.2%	13.7%	13.2%	10.7%
Piglet Survival	76.4%	77.8%	78.5%	79.9%	80.7%	83.5%
Pigs Weaned / Female Farrowed	10.71	11.30	11.74	11.82	12.23	12.88
Average Wean Age	21.4	21.3	20.7	21.8	20.8	20.9
Death & Euthanized Rate	13.5%	12.7%	13.0%	11.4%	10.8%	10.4%
Replacement Rate 모돈교체율	57.7%	59.8%	62.1%	52.9%	63.4%	63.7%
Female Non Productive Days	76.9	58.7	57.3	53.1	53.6	48.2

- 또한, <그림5>에는 NPB(2022)에서 조사한 미국 농장의 모돈교체율별 농장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33-84%의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543농장 중 32.0%인 174개 농장의 모돈교체율이 45%-57%에 속해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했음

<그림5> 모돈교체율별 농장분포(2021)



○ 모돈 교체

- 후보돈 육성비용을 감안하면 후보돈 구입 및 육성비용은 모돈이 2.4-2.6산이 되어야 회수할 수 있음. 시뮬레이션에 의한 모돈의 도태 산차별 산차분포가 표시되어 있는데, 6산까지 사용하고 7산 이후 모돈은 모두 도태하는 경우 모돈 교체율은 72%이고 10산까지 사용하고 도태할 경우 교체율이 55%인 것으로 모의분석 되었음(표6, Dhuyvetter, 2000)

<표6> 모돈의 최종 도태산차에 따른 산차별 모돈비율

도태하기 직전 산차	1	2	3	4	5	6	7	8	9	10
	각 산차별 분만복수 비율									
Parity 1	100.0	53.6	38.2	30.7	26.4	23.3	21.4	19.7	18.5	17.7
Parity 2		46.4	33.2	26.6	22.7	20.2	18.6	17.0	16.2	15.5
Parity 3			28.6	23.0	19.5	17.4	15.9	14.7	13.9	13.2
Parity 4				19.8	16.8	15.2	13.6	12.7	12.1	11.4
Parity 5					14.5	12.9	11.8	10.9	10.3	10.0
Parity 6						11.1	10.0	9.5	8.9	8.6
Parity 7							8.6	8.2	7.6	7.3
Parity 8								7.3	6.7	6.4
Parity 9									5.8	5.5
Parity 10										4.5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산차	1.00	1.46	1.90	2.32	2.70	3.07	3.40	3.76	4.05	4.32
모돈교체율	298%	163%	117%	94%	81%	72%	66%	61%	57%	55%
PSY	18.7	19.7	20.3	20.6	20.8	20.9	21.0	21.1	21.0	20.9

- <표7>에는 도태 산차에 따른 비육돈의 두당 수익(표7, Gruhot등, 2017)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데, 1산 까지만 사용할 경우 두당 $6.60(약 9천원) 손실이 나는 등 모돈의 도태산차가 농장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7> 모돈의 도태산차에 따른 비육돈 두당 수익성

	도태하기 직전 산차									
	1	2	3	4	5	6	7	8	9	10
Ave parity†	1.00	1.46	1.90	2.32	2.70	3.07	3.40	3.76	4.05	4.32
Ave removal parity§	1.00	1.86	2.62	3.26	3.79	4.29	4.68	5.08	5.41	5.64
Sow inventory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모돈도태율(%)	295	158	113	90	78	69	63	58	54	53
Pigs sold/sow/year	21.91	22.37	22.62	22.68	22.65	22.56	22.46	22.34	22.21	22.06
총 생산비에 대한 두당 수익($)	-6.60	1.70	4.04	4.93	5.24	5.35	5.30	5.20	5.06	4.79

- 두 분석(Dhuyvetter(2000)과 Gruhot등(2017))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전제는 초산 모돈의 번식 성공율 80%, 각 산차별 이유 후 재사용율 86%이었는데, 이 경우 모돈 교체율을 55% 이하로 줄일 수 없음. 모돈 교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유 후 모돈 재 사용율을 높여야 함

○ 모돈 도태기준

- 모돈을 도태할 때 검토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도태 기준의 탄력성 있는 적용도 필요함. 모돈 교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돈의 도태 기준을 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낮은 산차의 경우 2번 이상 재발, 또는 분비를 동반한 유산 등을 보이면 도태해야 하지만, 성적 저하로 도태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가능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표8>에는 도태 대상돈 2두의 성적이 표시되어 있음. 산차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와 나머지 성적을 확인한 후에는 도태에 대한 결정이 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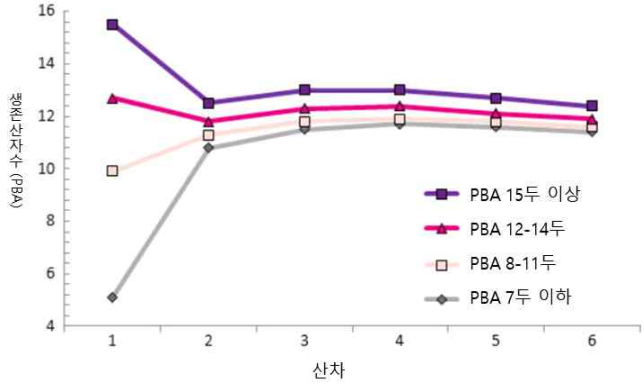
<표8> 도태 대상모돈의 성적

모돈번호	산차	총산평균	실산평균	이유평균	분만간격	연간실산	PSY
E805	7	14.57	13.43	12.71	150.7	33.66	31.02
B191	4	9.25	8.50	7.50	164.7	20.39	17.45

- Iida등(2015)는 초산에서 성적이 우수한 모돈이 이후 산차에서도 실산자수(그림6)와 분만율(그림7)도 우수하고 총생애 PSY(그림8)도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Kleve-Felt(2021)도 모돈 5100두의 성적을 분석하였는데, 초산모돈의 성적이 이어지는 산차에 영향을 미쳐서, 초산에 1두 더 많이 생산한 모돈이 다음 산차에도 0.4두씩 더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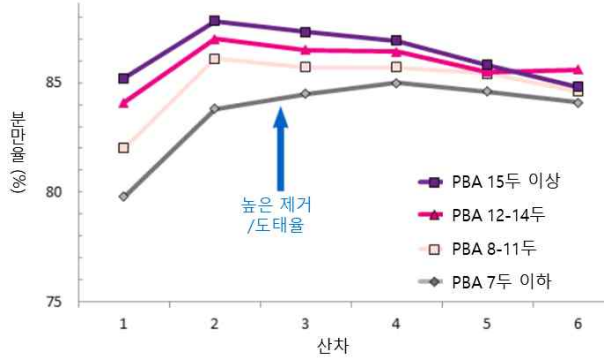
해서 5산까지 생산할 경우 2.6두를 더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그림9)

<그림6> 초산 실산자수 별 이후산차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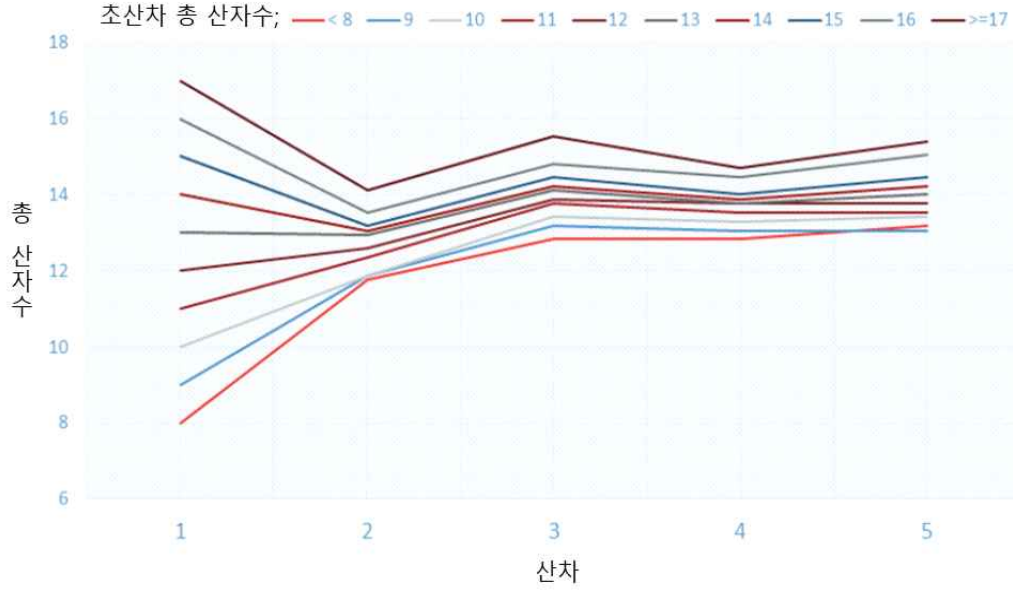
Iida(2015)
- 남부유럽의 477천복을 분석한 결과
- 초산의 생존자돈수에 따라 모돈을 구분하여 이후 산차의 성적 분석
- 7두 이하, 8-11두, 12-14두, 15두 이상

<그림7> 초산실산자수 별 이후산차 분만율



<그림8> 초산실산자수 별 총생애 PSY

<그림9> 초산차 성적별 이후산차 총산자수(Kleve-Felt, 2021)



5. 모돈 교체율 향상방안

○ 농장의 성적목표

- 우리농장의 모돈 교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① 연간 모돈교체율은 몇%인가?

② 평균산차는?

③ 3산을 마치는 종돈의 비율은?

④ 좋은 도태와 나쁜 도태의 비율은?

⑤ 교체원인은 무엇인가?

- 각 항목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면 좀 더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함. 2산차 모돈 재사용 문제를 없애고 3산까지 사용하는 모돈의 비율을 80% 이상 높여야만 모돈 교체율을 40%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임. 모돈의 교체율이 줄어들면 산자수나 총생애 생산(이유두수)등에 대한 목표도 도전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함

○ 종돈개량

- 교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돈의 연산성이 개량되어야 하는데 모돈의 연산성과 관련이 있는 형질에 대한 유전력은 (표8)과 같이 낮아서(Mote 등, 2019) 산자수와 비슷한 유전력을 보이고 있음. 유전적 개량을 위해서는 관련된 항목을 정의하고 측정방식을 표준화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표8> 모돈의 연산성 관련 형질의 유전력

	평균	범위	비고
잔존력	0.08	0.02 - 0.10	도태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
모돈 수명	0.17	0.05 - 0.31	
생산 수명	0.13	0.05 - 0.34	
지제 강건성	0.11	0.06 - 0.15	

- 농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돼지고기를 제공하며 연간 모돈당 판매 체중을 늘리고 사료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증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모돈의 연산성,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모돈의 총생애 생산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모돈의 사용연한을 연장하면 후보돈 육성

비용은 물론 격리/순치 비용 등을 줄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산성 모돈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유전적 개량과 함께 모돈의 경제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한돈 생산자가 더 효율적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산차 문제

- 초산 이후 재 사용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농원예위원회(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는 Gilt Watch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 전반에 거쳐 최고의 관리로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농장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대상 농장임

  ① 보충된 후보돈 중 3산까지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번식관리를 통하여 비생산일수를 최소화 한다.
  ③ 2산차 문제가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농장.

- AHDB의 Gilt Watch 프로그램에 선정된 농가는 일정기간 동안 최상의 관리가 돈군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①도태두수 및 내역, ②비생산성일수를 포함한 생산효율 지표와 ③초산, 2산의 산자수를 제시하고 일년에 두차례 회동하여 의견교환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Gilt Watch가 선정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이 결과 일반농장보다 Gilt Watch 참여농장의 교체에 필요한 후보돈 두수가 34% 감소하였음(표9, AHDB, 2024).

<표9> Gilt Watch 참여농장의 후보돈 교체율

	산차	1	2	3	4	5
일반농장	교체(두)	8	12	9	9	11
	잔류비율(%)	91.97	80.51	71.25	61.94	51.25
Gilt Watch 참여농장	교체(두)	5	3	3	2	2
	잔류비율(%)	95	92	89	87	85

○ 이유모돈 재사용율에 따른 모돈 교체율

- 모돈 교체율에 대해서 농장에서 쉽게 모의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이유모돈의 재사용율임. 특히 1산 이유 후 2산 교배 비율과 2산 이상 이유 후 다음 산차 교배 비율이 모돈 교체율에 많은 영향을 미침.

재사용율 이외에도 농장의 분만율에 따라 모돈 교체율이 영향을 받음

- <표10>에는 초산모돈 재사용율과 분만율에 따른 모돈 교체율을 모의분석한 것으로 초산 이유모돈 재사용율과 분만율이 90%/90%인 경우와 85%/85%인 경우 모돈 교체율은 각각 45.3/39.7%로 분석되었음
- 또한 한돈팜스 일반사용자 2022년 성적을 대입하면 연간 43.4%의 모돈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일반적인 성적의 농장의 경우 41.9%로 분석되었음. 모든 분석은 2-4산후에는 95%, 6-7산은 90%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산차에는 70%, 50%, 20% 모돈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음

<표10> 이유모돈 재사용율 및 분만율에 따른 모돈 교체율 모의분석

	모의분석 A	모의분석 B	한돈팜스 (일반관리자)	일반농장
분만율	85%	90%	85%	88%
초산돈 재사용율	85%	90%	85%	90%
모돈교체율	45.3%	39.7%	43.4%	41.9%
후보돈구입비율	47.7%	41.8%	45.7%	44.1%

- 모의분석한 가장 좋은 성적인 초산 이유모돈 재사용율 90%, 분만율 90%인 농장의 예상되는 산차구성은 <표11>과 같아서 Muirhead(1997, 표1)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11> 모의분석 추정 산차구성

산차(산)	1	2	3	4	5	6	7	8	9+
모의분석 추정(%)	17.4	15.1	13.9	12.7	11.6	10.1	8.7	6.7	3.8
Muirhead, 1997(%)	17	15	14	13	12	11	10	5	3

6. 나가는 글

○ 모돈 도태와 교체에 대한 도전적인 성적목표를 세우고 후보돈과 초산모돈 사용율을 향상하면 모돈 교체율을 40%이하로 줄일 수 있다. 특히 분만율이 5% 개선되면 모돈 교체율은 3.5% 낮아진다. 임신기간 중에 재발 이외의 원인으로 도태되거나 폐사되는 비율을 감소해야 함

○ 우리나라의 연간 종돈 등록과 이동 두수는 <표12>에 집계되어 있음.

2023년말 조사된 모돈 수는 100만 두로 모돈 교체율 40%, 후보돈 육성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42만 두의 후보돈이 필요한데, 혈통등록이나 이동등록 등을 통해서 교체되는 모돈은 약 28만 두이고 나머지 14만 두는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생산하거나 이동등록 없이 모돈을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12> 2023년 혈통등록 및 이동등록 실적

구분	혈통등록		이동등록		비 고
	순종	F1	순종	F1	
두수	44,426	237,463	24,554	210,003	수입돈 2,996두 포함
	281,889		234,557		

(끝)

농축산식품 가격 추세 및 요인

1. 농산물 가격 인상 현황

○ 최근 **농산물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사과(후지)의 2023년 12월 가격**은 **지난해** 신고가격인 30,700원/10kg **대비 63~76%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배**의 경우 지난해 12월 신고가격인 34,900원/15kg에 비해 **75%~86%까지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음

<2023년 12월 주요 과일류 가격 전망>

품목	단위(상품)	2022년	2023년 전망 가격(원)	전년대비	가격 등락 원인
사과(후지)	10kg	30,700원	50,000~54,000	▲63~76%	출하량 감소
배(신고)	15kg	34,900원	61,000~65,000	▲75~86%	출하량 감소
감귤(노지온주)	5kg	11,400원	12,000~14,000	▲5~23%	대체과일 가격 상승
단감(부유)	10kg	27,100원	42,000~46,000	▲55~70%	출하량 감소

출처: 농업관측 2023년 12월호 과일(KREI)

○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류** 역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토마토와 딸기의 출하량 감소로 인해 **일반토마토**의 경우 **전년 2월 가격 대비 50%(26,700원/5kg) 상승**하였으며 **딸기**의 경우 **전년 2월 대비 29%(30,900원/2kg) 상승**하였음

<2024년 2월 주요 과채 가격>

단위(상품)	단위(상품)	2024년 2월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가격 등락 원인
일반토마토	5kg	26,700원	▲50%	출하량 감소
딸기	2kg	30,900원	▲29%	출하량 감소
참외	10kg	107,700원	▲12%	출하량 감소

출처: 농업관측 2024년 3월호 과채(KREI)

○ 농산품의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생산비 증가** 등으로 꼽히고 있음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 반면, 소비는 줄지 않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
- 기상이후로 인한 과일 출하량, 저장량 급감

<2023년 과일 저장량 & 출하량>

품목	생산량(천 톤, %)			저장량(천 톤, %)			2023년 출하량(%)
	2022년	2023년	증감폭	2022년	2023년	증감폭	22년 대비
사과	566.0	425.4	▼25%	292.0	202.7	▼31%	▼28%
배	251.1	203.1	▼19%	128.0	88.1	▼31%	▼28%
단감	103.9	70.8	▼32%	103.9	70.8	▼32%	▼14%

출처: 농업관측 2023년 12월호 과일(KREI)

- 비료, 농약비, 난방비,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2022년 농업 현황>

□ 농업소득*: 2021년 대비 14.7% 감소(1천105만원)
□ 농가소득**: 2021년 대비 1.6% 감소(4천699만원)
□ 농업경영비: 70.3% 이상으로 점유 비중 증가

*농업소득: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
**농가소득: 농업 농외 등 품팔이까지 합친 모든 수익
출처: 농업전망 2023

2. 한돈 농가 피해 현황

○ 현재 한돈 농가는 생산비(5,315원/kg) 대비 **낮은 돼지가격 형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23년 12월부터 매월 약 600~1,400억의 피해 발생
- 23.12 ~ 24.3까지 총 약 5**천 5백억 원**의 피해액 발생

<한돈 농가 피해액 산출(23.12~24.03)>

구분	23.12	24.01	24.02	24.03
도매가격(원/kg)	4,890	4,386	4,272	4,807
농가 손익/두(원)	-48,875	-106,835	-119,945	-58,420
도축두수(두)	1,625,657	1,826,631	1,576,491	1,587,822
농가 손익 합계(백만원)	-79,454	-195,148	-189,092	-92,761

* 생산비 : 중위농가 MSY 17.1두 기준 생산비 5,315원/kg
* 비육돈 115kg, 지육율 76% 적용

3. 할당관세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

○ 지난해 초 정부는 **양파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2만 톤을 증량하면서 이에 농가들은 급증한 양파 수입량에 우려를 표하였으나 수입을 진행하였고, 양파 수확이 시작되는 7~9월에는 TRQ 물량을 3만 톤 도입하면서 양파의 2023년 1~9월 수입량이 22년 동기 대비 145.8% 증가하였음. 이에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파 출하기 수입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대형 유통 및 저장 업체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양파협회는 24년 3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 폭락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최근 농산물 유통**의 경우 대형 소매업체, 외식업체의 산지 직구매, 농가와 소비자의 온라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함

○ 한돈의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12~2월의 경우 큰 폭의 피해**를 보고 있음. 또한, 지난해 **할당관세의 여파**로 **대형마트에서**는 잔여 물량 소진을 위해 **돼지고기 대규모 할인 판매를 전개함**

- 다만, 봄철로 접어들면서 개학, 나들이 활동 증가 등으로 다시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돼지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

○ 한돈 농가의 돼지 생산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돼지고기의 적절한 가격 형성은 농가 경영 안정에 필수임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올해 3월 중순(~3.15) 누계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10만2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이상 상승한 수준**임

- 작년 돼지고기 7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인하했지만 실제 반입 물량은 약 2만3천톤으로 32%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소비 부진으로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효과는 미미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은 **한돈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작년과 같은 과오를 겪지 않게 **신중해야 할 것**임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 동향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월대비 0.1% 상승
-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여 전월 3.1%와 동일

○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상승하여, **전년 12월 대비 1.23% 상승**함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전체) >

(2020=100, %)

구분	'2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월	2월	3월
지 수	110.52	110.77	111.13	111.16	111.29	112.28	112.83	113.26	112.67	112.71	113.15	113.77	113.94
전 월 비	0.2	0.2	0.3	0.0	0.1	0.9	0.5	0.4	-0.5	0.0	0.4	0.5	0.1
전년 동월비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2.8	3.1	3.1
전년 누계비	4.6	4.4	4.2	3.9	3.7	3.7	3.7	3.7	3.6	3.6	2.8	3.0	3.0

* 출처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2.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 동향

○ 주요 품목별로 3년간 물가지수 동향을 살펴 보았을 때, 축산물 제외 서비스, 공업제품, 농산물 등 주요 품목들의 물가는 상승하였음
- 개인서비스는 21년 대비 약 13.1% 상승
- 전기・가스・수도는 21년 대비 31.89% 상승
- 공업제품은 21년 대비 약 8.95% 상승
- 농산물 중 채소, 과실은 21년 대비 각각 27.65%, 57.37% 상승
- 축산물은 21년 대비 1.7% 상승
- **돼지고기는 21년 대비 0.4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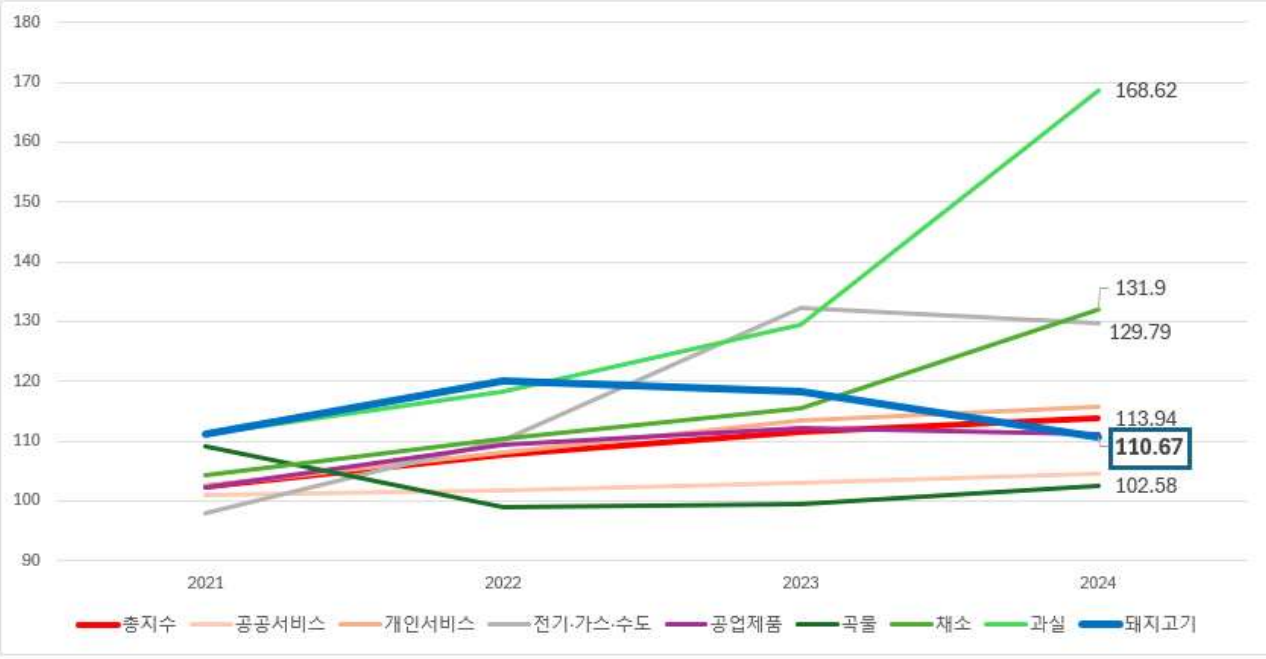
< 주요품목별/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2020=100, %)

구분		2021(A)	2022	2023	2024.03(B)	상승률(B-A)
총지수		102.50	107.72	111.59	113.94	11.44
서비스	공공서비스	100.96	101.73	103.03	104.66	3.7
	개인서비스	102.55	108.11	113.32	115.65	13.1
전기·가스·수도		97.90	110.20	132.27	129.79	31.89
공업제품		102.29	109.33	112.18	111.24	8.95
농산물	곡물	109.15	98.86	99.34	102.58	-6.57
	채소	104.25	110.27	115.58	131.90	27.65
	과실	111.25	118.17	129.54	168.62	57.37
축산물	전체	112.65	119.45	116.87	114.35	1.7
	국산쇠고기	108.90	110.43	104.37	103.50	-5.4
	수입쇠고기	108.90	110.43	104.37	130.96	22.06
	돼지고기	**111.11**	**120.09**	**118.33**	**110.67**	**-0.44**
	닭고기	107.67	122.54	137.06	131.82	24.15
	달걀	141.29	135.59	133.06	134.38	-6.91
	꿀	102.01	105.23	110.75	110.93	8.92

* 출처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KOSIS

* 공공서비스 : 대중교통비, 병원 진료비 등, 개인서비스 : 외식비, 학원비, 여행비, 관리비 등
공업제품 : 석유류, 가공식품 등



< 주요품목별/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3. 주요 외식품목 물가지수 동향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주요 외식 품목 39개의 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하였을 때, 총 39개 품목 중 24번째로 조사되었음

- 21년 대비 가장 높게 상승한 외식품목인 김밥은 25.9% 상승
- 21년 대비 가장 낮게 상승한 외식품목인 주류 외의 기타음료는 5.2% 상승
- 삼겹살(외식)은 21년 대비 17.3% 상승

< 주요 외식품목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2020=100, %)

구분	2021(A)	2022	2023	2024.03(B)	상승률(B-A)
김밥	104.78	115.98	125.90	130.67	25.9
햄버거	103.64	112.45	123.48	128.70	25.1
떡볶이	102.95	112.90	121.96	126.62	23.7
라면(외식)	103.19	113.56	122.68	125.93	22.7
자장면	103.07	114.20	122.42	125.66	22.6
피자	98.91	107.70	119.73	119.92	21.0
돈가스	102.31	111.28	119.85	122.96	20.7
생선회(외식)	105.70	116.08	123.22	125.72	20.0
치킨	102.96	112.68	118.47	121.59	18.6
삼겹살(외식)	**102.42**	**111.62**	**117.64**	**119.73**	**17.3**

4. 결론

○ 3년간 소비자물가동향을 요약하자면 축산물을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과채류 등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

○ 축산물의 경우 매우 낮은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21년 대비 0.44% 하락**하였지만 정부의 발표자료나 소비자 물가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농축수산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과채류와 함께 지칭하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의 **농축수산물 대표 이미지 또한 축산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오해는 소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해소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전망①

2024년 4월 한돈팜스 수급 전망 보고서

2024년에도 생산성을 높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합니다.

1. 3~4월 출하 및 사육두수

(단위: 두, %)

구분	2024년 3월	2024년 4월	전월대비
실제도축 (예상두수)	1,587,822 (1,638,112)	1,568,778	98.8
예상 사육두수	11,770,248	11,337,544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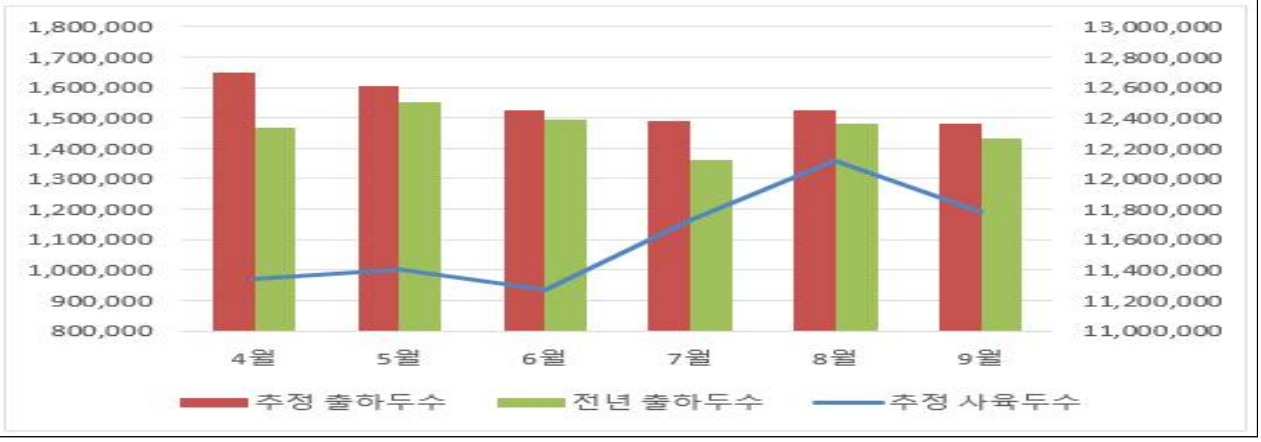
3월 출하두수는 158만 7,822두로 전월보다 0.7% 많았고, 전년 동월 대비 6% 적었다. 작업일수는 전년보다 2일 적은 20일이었고, 일일작업두수는 79,391두로 전년의 76,743두보다 3.5% 많았다. 2024년 4월 출하두수는 156만 8,778두로 전년보다 7.2%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4월 사육두수는 1,133만 7,544두로 전월보다 약 27만 8,000두(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향후 6개월 사육 및 출하 전망

(단위: 두,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추정 사육두수	11,338,000	11,404,000	11,273,000	11,730,000	12,123,000	11,786,000
추정 출하두수	1,569,000	1,515,000	1,426,000	1,409,000	1,452,000	1,482,000
전년 출하두수	1,469,473	1,552,612	1,494,032	1,362,963	1,480,105	1,432,564
전년 출하대비	107.2	97.6	95.5	103.4	98.1	103.4

4월 출하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7.2% 많은 156만두로 예측된다.
4월 작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20일, 1일 도축두수는 7만 8,439두로 전년보다 7.2%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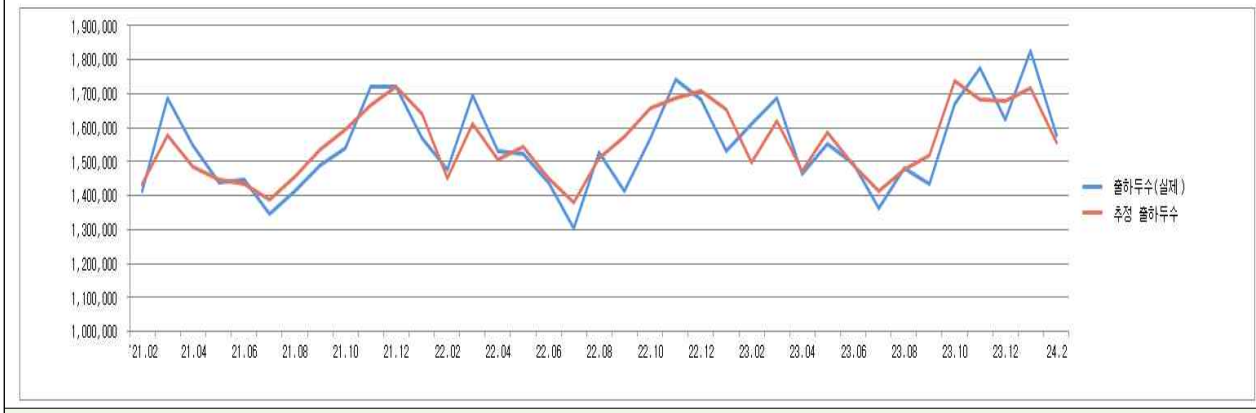
3. 도매가격 동향 및 전망

3월 평균 제주 포함 지육 가격은 4,937원/kg으로 전년 보다 4.8% 낮았고, 제주 제외 가격은 4,807원/kg으로 전년 동월보다 95원/kg(2.0%) 높았다. 3월 3주차(12주차) 5,051원/kg까지 상승한 도매가격은 4주차 4,853원/kg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증가폭은 크게 감소하였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3월도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소비는 4월 정부 주도의 대대적 할인행사로 인해 일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첫째 주 주간 도축두수는 지난주보다 3.5% 적은 37만 4,283두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보다는 4.0%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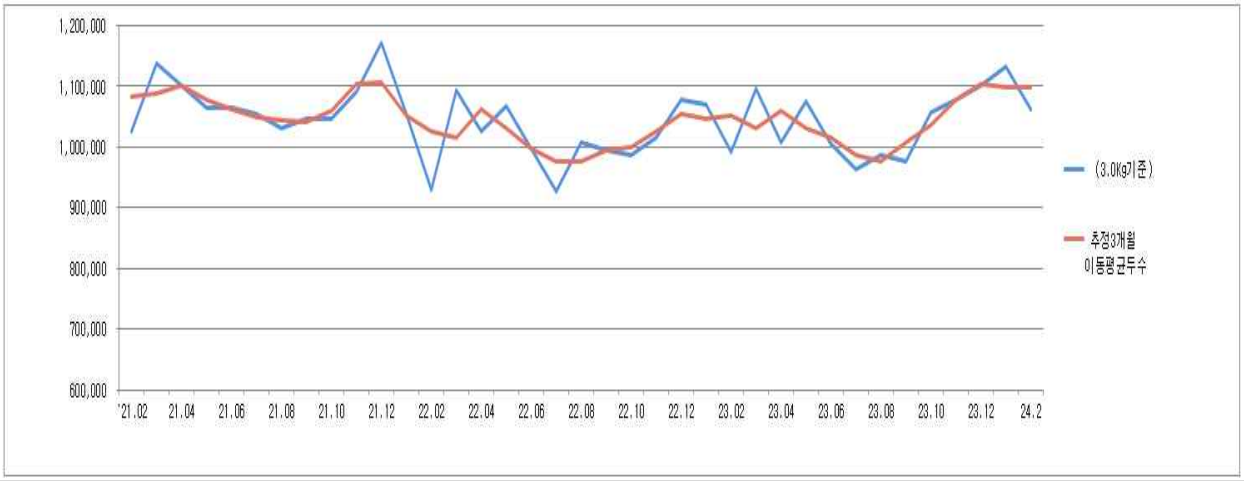
4월 평균 지육가(제주제외)는 4,800~4,900원/kg으로 형성 중.

5월 평균 지육가(제주제외)는 5,400~5,700원/kg으로 전망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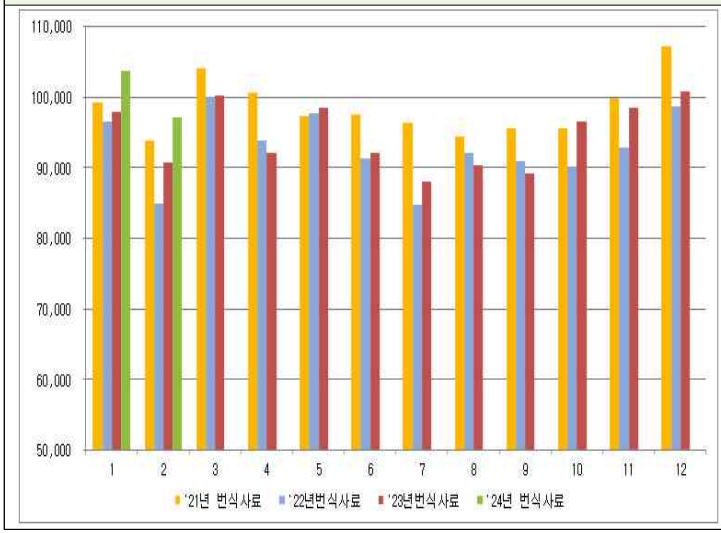
4. 사료생산 실적 (2021. 2 - 2024. 2 농림축산식품부)



[비육사료를 활용한 추정출하두수] 2021년 2월 ~ 2024년 2월까지의 비육돈 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출하두수를 추정한 자료(한돈팜스에서 도출한 두당일일섭취량 평균값(1.7kg/일)와 출하일령(200일령기준))이다. 사료생산량으로 추정한 2월 출하두수는 1,558천 두였다. 그러나 실제 출하두수는 이보다 1만 8천두 적은 1,576천두를 기록했다.



[번식사료를 활용한 추정 모돈두수] 번식돈사료(후보돈, 번식돈 사료 포함)의 생산량을 번식돈 평균 섭취량을 고려하여 일평균 3.0kg으로 추정한 모돈 사육두수이다. 번식돈 사료 생산량으로 추정한 모돈수(후보돈 포함)는 약 106만여 두로 추정된다. 3개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2월 110만 두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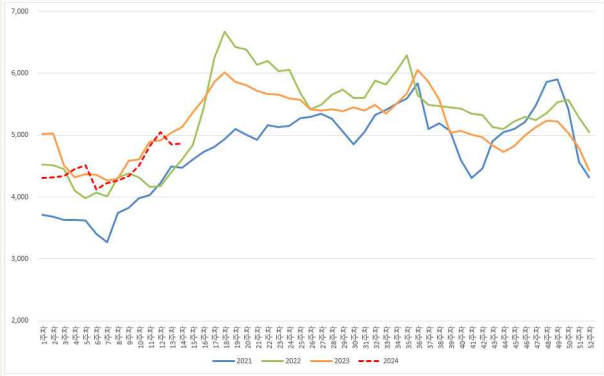


2024년 2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588천 톤으로 전년 동월(563.2천 톤)보다 4.4% 많았다. 번식돈 사료량은 97천 톤으로 전월 대비 3.6%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였다. 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491천 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양의 사료가 생산되었다.

5. 국내 돈육시장 동향

금년 3월에는 전월대비 94% 수준인 약 158만 8천두의 도축이 이뤄졌다. 작년 3월의 약 168만 8천두보다 6.0% 감소한 수준이었고, 평일 기준 1일 도축두수는 79천두 수준이었다. 한편 3월 도매시장 경락단가는 제주 제외 전국 평균은 4,807원/kg으로 전월 4,272원/kg 대비 12.5%(535원)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의 4,712원/kg보다 2.0% 높았다.

<돼지 도매가격 추이(제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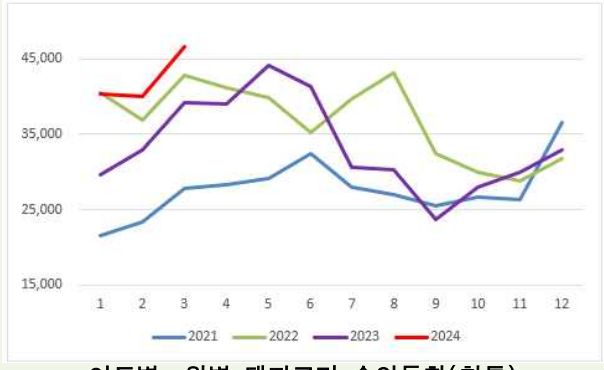
연도별, 주간별 전국 평균 비육 돈가 변화

<2024년 1월 사료생산량 >

연도별, 월별 배합사료 생산량(만톤)

· 2024년 2월 사료생산량 58만 8천톤, 전년대비 4.4% 증가
· 역대 동월 중 가장 높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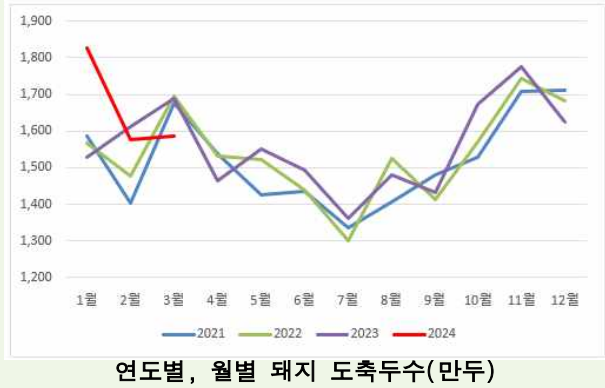
<2024년 3월 돈육 수입량 4만 6,680톤으로 전년 비 19.0% ↑ >



연도별, 월별 돼지고기 수입동향(천톤)

· 2024년 3월 돈육 수입량은 4만 6,680톤으로 전년 동월의 3만 9,229톤보다 19.0% 증가
· 2024년 누계 전년 동기간 대비 24.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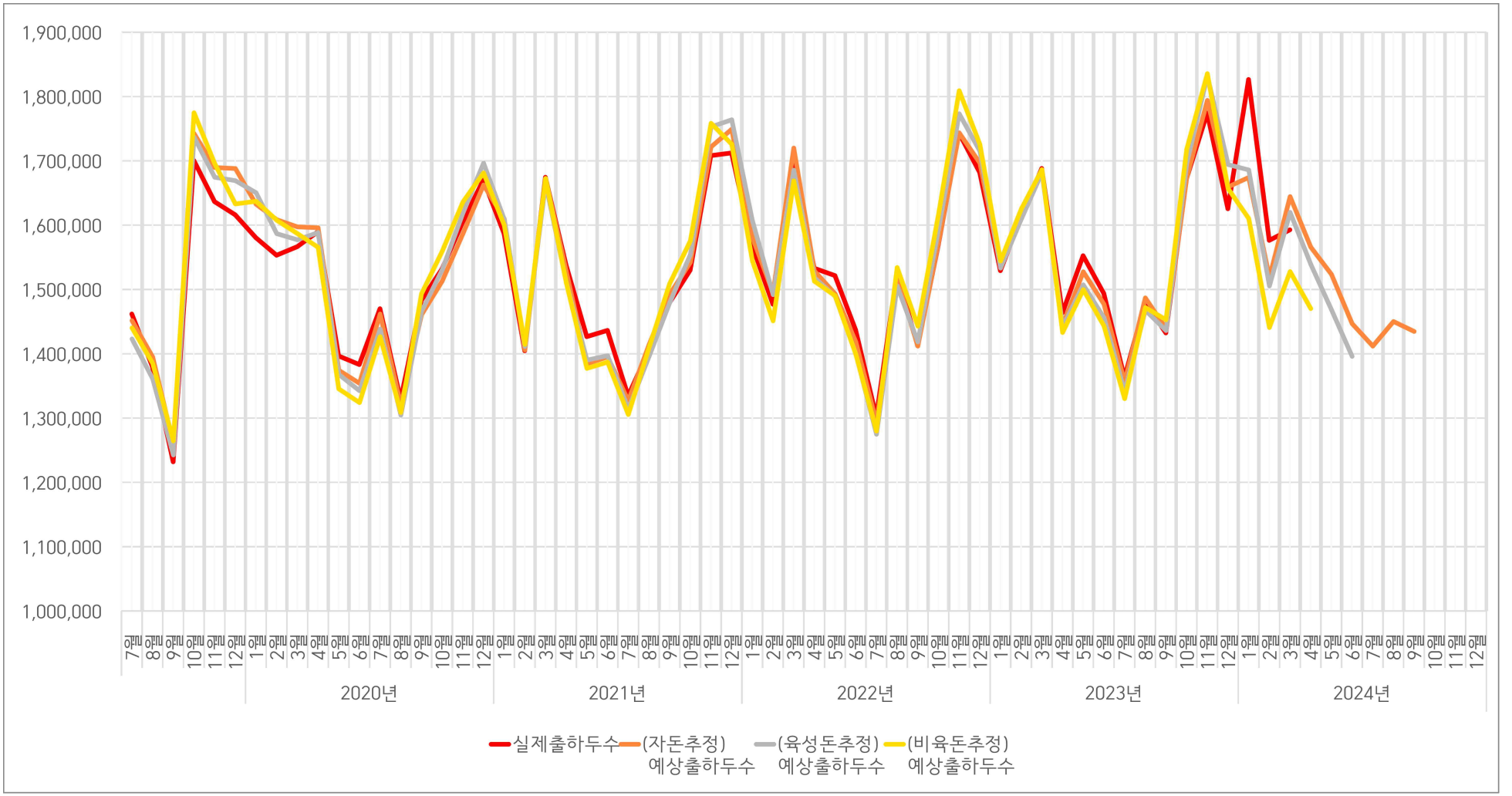
<2024년 3월 도축두수, 158만 7,822두로 전년비 6.0%↓>



연도별, 월별 돼지 도축두수(만두)

· 2024년 3월 돼지 도축두수는 158만 7,822두로 전년 동월의 168만 8,351두보다 6.0% 감소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사육두수 기반 예측 출하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24(p)	1,674,178	1,518,346	1,644,322	1,565,823	1,523,408	1,446,737	1,411,847	1,449,020	1,434,638

글로벌 돼지 이슈

□ 2024년 세계 돈육 공급량 하향 전망

2024년의 세계 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9%)하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돈육 최대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유럽연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예측됐다.

2023년 세계 돈육 생산량은 2022년에 비해 0.6% 증가한 1억1천500만톤(도체 기준)을 기록하였고, 유럽의 돈육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중국과 브라질의 돈육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감소된 분량을 해소해 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제 돈육 수요는 2022년 대비 3.1% 감소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 돼지 도축량이 7.6%(1,730만 두) 감소했으며, 제3국으로 수출 또한 19% 감소하였다.

올해에는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산 돈육과 브라질산 돈육에 비해서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돈육 생산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PRRS 등의 요인으로 인해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중국은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육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돈가가 급락했고, 생산비 마저 높아지면서 중국 내 모돈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농업부는 자국 내 모돈 사육두수를 3천9백만 두로 설정하여 돼지고기 산업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감소된 돈육 공급량의 보완을 위해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돈육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생산성 향상과 수요 회복 등의 요인으로 2.4%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산, 수출, 소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비의 하락과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칠레 :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 근절

칠레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자국 내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을 근절했다고 선언하고, PRRS 바이러스 퇴치 및 근절을 위한 위생조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칠레 농무부 농축산업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PRRS의 퇴치 및 근절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지난 해 OMSA 육상동물보건코드 지침에 따라 전국에 해당 질병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음성 결과를 획득하면서 PRRS 바이러스의 근절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 글로벌: 2030년까지 전 세계 돈육 소비량 7.2% 증가 예상

미국 농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향후 7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말에는 2023년 대비 9.6% 증가한 3억 5천840만 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중 2030년 전 세계 돈육 소비량은 2023년 대비 7.2% 증가한 1억3천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베트남,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각각 28.3%, 11.7%, 5.8%,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돈육 소비량은 2023년 대비 14.2% 증가한 1천70만 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2030년 총 돈육 소비량은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2030년 돈육 소비량은 1천770만 톤으로 2023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베트남 : 2024년 1분기 생산비 및 돈가 동향

베트남의 1분기 생돈 평균 가격은 지난 3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상승했다.

베트남의 올해 3월 자돈(6~9kg) 가격은 농가에서 사육되는 경우 두당 한화 약 7만~8만2천 원, 기업에서 사육되는 경우 두당 약 7만7천~9만3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두당 약 2천7백~5천4백 원, 작년 동기에 비해 두당 약 1만1천~2만7천 원 상승한 가격이다. 비육돈 배합사료 가격은 올해 2월 대비 약 0.1% 하락한 약 675원/kg이다.

현재 베트남의 생산비는 약 2천5백~2천7백 원/kg으로, 올해 1분기 양돈 농가의 수익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